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2주일
제34권 40호(가해) 2014·8·31

[묵상]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보다도
자기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일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온통 쏟아 부으면서도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과 시간은 아까워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는 장애물이 됨을 알아야만 한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전환,
곧 관심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보다는 너를,
세상의 것보다는 하느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백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손영달 & 강소아, 최근석 마리아 박문규 프란체스코 & 최옥선 클라라, 이강희 윤일요한 & 박덕기 카타리나, (생)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진시웅 요한, 이명자 로사, 오피환 마리아, 김차옥 요셉 & 김복남 마리아, 김동욱 요아킴, 서진경 안드레아 & 최상기 & 조명길 루시아, 이철우 야고보, (생)석순영 아네스, 손희성 로렌조, 안희선, 이귀분 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아서(Jeremiah) 20,7-9

화답송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
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
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
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
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
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
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2,1-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 음 마태오(Matthew) 16,21-27

영성제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241	231
봉헌	409	270	264
성체	주품에	283	281
파견	401	232	192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세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2. 예수님과 성령

1) 예수님과 함께하신 성령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시어 성령 안에서 자
신을 바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
럽게 하신 것이다.

2)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생애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
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다. “내가 아버
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요한 14,16).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 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며, 그들
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4,17,25-26;
15,26; 16,13 참조).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요한 15,18-27 참
조),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에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시는
분이다(마르 13,11; 루카 12,11-12 참조).

3. 교회와 성령

예수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
에 떨고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
한 20,22). 또한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불꽃 모양으로’ 사도들
위에 내려오셨다(사도 2,1-4 참조).

성령으로 가득 찬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
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고(사도
2,36 참조), 이들의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
었다(사도 2,41 참조). 교회의 시작에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계
속 교회 안에 머무르시면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에 필요
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선사하시며,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
이 일치를 이루도록 이끄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성전’, 곧 ‘성령의 성전’ 이다(1코린3,16-17;
6,19; 에페 2,22 참조).

1)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영

성령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내적으로 변화
시키신다.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
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계속>

말 씬 에 찬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밥이자 약입니다.

제가 고백성사 때 자주 주는 보속이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백자들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성경 구절을 써주고 매일 마음에 담고 생활하라 합니다. 대부분 처방에 따라 충실히 '말씀 약'을 복용한 후 그 효능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고, 수년 동안 말씀의 처방전을 지갑에 간직했다 보여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말씀이 사랑을 복돋워 주고 성소를 굳건히 해 줍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말씀은 그의 성소의 원동력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얼마나 뜨겁게 하느님을,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걱정하여도 뱃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겠습니다."(예레 20,9) 하느님은, 그분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운명이자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모든 이들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하느님사랑,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은총'입니다. 말씀의 은총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우리를 정화하고 성화합니다. 진정한 내적변화와 분별력의 은총도 말씀 수행의 열매입니다. 바오로의 권고 말씀이 적절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12,2) 끊임 없는 말씀 수행이 있어 바오로의 권고 말씀도 실현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성화합니다.

말씀의 은총은 주님을 닮는 내적 변화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는 분별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내적 힘ियो, 내면의 빛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 믿는 우리 모두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 이 말씀대로 살 때 순교적 삶입니다. 사람이 되는 구원의 길이자 생명의 길은 이 말씀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 제 십자가의 짐을 덜어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항구한 말씀 수행을 통해 이런 내적 힘을 선사 받습니다. 말씀은 사랑이요 은총이요 힘입니다.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내 앞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을 예찬하기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는 이는 말씀을 사랑하여 평생 '말씀의 수행자'로 삽니다. 아멘.

◆이수철 신부 /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어떤각오



사랑하는 이가 생겼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선하게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 이런 각오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에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3반

- ◆ **탁구 동호회 9월 월례대회**
 ● 일시 : 9월7일(주일) 1시30분 유아실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 (310)971-7043

◆ 제27차 남가주 성령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 비치중
- 문의 : ☎(310)780-0369

◆ 주일학교 교사모집합니다

- 성당의 미래인 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신앙으로 봉사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견진반 학생모집 (2014~2015학년도)

- 새학년도 견진교리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고싶은 학생들은 아래 견진 교리교사에게 신청하여 주세요.
- 대상 : 주일학교 10~12학년
 - 수업일시 : 9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반
 - 장소 : 2층 교사실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주일학교 교리교사 세미나

- 일시 : 9월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강당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 9월1일은 노동절 연휴입니다. 사무실은 화요일 휴무입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31일 :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 9월7일 : 소공동체 김밥 (\$4)

교무금	강속경 박선희 서성용 윤선희 이원형 정남영 최영신	금동군 박완철 안민수 윤화경 이인석 정동호 최진수	김광자 박종열 안재경 이경태 이재용 정열모 주창한	김교복 박진수 오상준 이귀분 이현주 정혜영 홍선자	김영숙 반비오 유영균 이병우 이형삼 차인수 한길선	김옥배 태임 육근주 이우성 임순 최열자 한길선
	합계 : \$ 4,940					
주일미사 현금 : \$2,697						
성전헌금	강속경 박선희 윤화경 이인석 정열모 한길선	금동군 박완철 이경태 이현주 정혜영	김광자 반비오 이귀분 이형삼 차인수	김교복 서성용 이병우 순자 이정남 최영신	김영숙 유영균 이우성 정남형 최영신	김윤선 이원형 이정동 최호진 최진수
	합계 : \$2,930					
감사헌금 : \$600 (최수복, 정동호) 성물부 수익금 : \$500						

공지사항

◆백삼위 한국학교 : 9월7일 개학합니다.2014~15학년도

- 학부모 간담회 : 오후1시 30분~2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추석행사 : 오후2시, 친교장
- 한국학교 추가 등록접수 받습니다 : 학생미사후 부터
-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13)700-9399

E-mail : 103skceks@gmail.com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LA 성 아그네스 천주교회 : 제 26기 커피교육안내

- 일시 : 9월7일(주일) 낮 2시~10시,
9월11일(목) 저녁 6시~10시
- 교육방법 : 양일중 택일하여 하루 강의듣고 30회실습
- 수강료 : \$200
- 문의 : ☎(323)731-4433 (사무실)

◆ 제3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

- 일정 : 9월 7, 14, 21, 28일 (4주일)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천주교회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면형강학회 (순교자 영성)

- 선조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고 정체성을
찾아 성숙한 신앙의 증거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기도과정
- 강학내용 : 한국, 중국 일본 천주교회사, 성지순례, 영성심화
- 첫 강학일 :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내 순교자영성센터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461-8100

◆ 제18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작품전

- 리셉션 : 9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8시
전시회 기간 : 9월 6일~19일
- 장소 : 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 #502
L.A., CA 90010
수익금의 일부는 작은예수회에 성금합니다
- 문의 : ☎(213)365-8285

☺ 서로 인사 합니다. ☺

노공동체 9월 반모임

노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최성자 카타리나 991-4838 9/20(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325-3888 9/13(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9/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9/21(일) 본당의날 행사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9/21(일) 본당의날 행사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9/21(일) 본당의날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9/21(일) 본당의날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데레사 634-6923 9/12(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9/13(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이 북임엘리자벳 905-2225 9/15(일)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금자 데레사 749-3151 9/13(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영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408-1443 9/12(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9/12(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9/6(토) 정오12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유현주 마리아막달레나 617-3568 9/9(화)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 1시
----------	-------

**124위 시복특집 < 2 > 윤유일 바오로(1760~1795)
최인길 마티아(1765~1795)
지 황 사 바(1767~1795)**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독하느니 차라리
천번 만번 죽을각오가 되어있다...

1789년 10월, 조선 교회의 밀사 윤유일은 주교에게 보내는 신자들의 서한을 품고 상인으로 가장한 채 동지사를 따라 북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라자로회 신부로부터 조건부 세례를 받고, 구베아 주교를 만나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견진성사를 받기 전 최초로 고해성사도 받고, 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도 모셨습니다. 1791년 5월에 다시 북경에 간 윤유일은 구베아 주교로부터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94년 12월, 조선 선교사로 파견을 받은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윤유일, 지황, 최인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주신부의 은신처를 마련하는 일은 최인길이 맡았습니다.

조선에 입국한 주신부를 모시고 서울 계동(혹은 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무사히 도착한 최인길은 주신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부의 통역을 맡아 성무 집행을 돕고 우리말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교자에 의해 주신부의 거처가 발각되고, 최인길의 집이 급습을 당했습니다. 이에 주신부는 강완숙의 집으로 피신하고, 최인길은 주신부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주신부로 가장하여 대신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날 윤유일과 지황도 체포되었습니다. 박해자들은 주신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사정없이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했으나 세 사람은 굴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박해자들은 이들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가 1795년 6월 28일인데, 세 사람은 그날 사정없이 매를 맞고 포도청 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해자들은 비밀리에 그들의 시신을 강물에 던져 버렸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이들의 순교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세 사람은 체포되던 날 밤 곧장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있는 대로 독이 올라 온갖 잔인한 방법들을 다 썼지만, 세 사람은 입을 꼭 다문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어 재판관들을 지치고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했던 세 사람은 결국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거의 같은시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렀으며,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얼굴은 영적인 기쁨으로 그지없이 평온하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7살 아이가 5살 동생을 돌보고 있었다. 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칭얼거렸다. 형은 동생을 무릎 베어 눕히고는 엄마처럼 했다.

형아손은 약손 니배는 품배.

영마손이 약손이야. 형아손은 아니잖아.

동생이 형아손을 밀치며 울어댔다. 할 수 없다. 유일한 약인 아까징끼를 찾아서 발라주었다. 동생은 고개를 들어 별장게 된 제 배를 보고는 “정말 낮은 거야?” 하고 울먹였다. “아주 좋은 약이니까, 좀만 기다리면 낮는다.”고 달래며 입으로 동생의 배를 후후 불어 말리고는, 타올로 덮어주자, “형아, 안 아플라칸다.” 하더니 금방 잠이 들어버렸다. 복음서 여러 대목에서 아이 같아야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위즈워스도 이 말씀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노라에서)라고 썼을 까요. 평생 발달심리학을 강의해 온 아동학 교수로서 반성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 같을 수 있는가?’ 아인슈타인은 인간 특성의 기초형성시기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는 발달의 기본특성을 단적으로 대변합니다. 영아가 서툴러 고생하던 유학시절, 저도 우리 민속의 이런속담 격언을 인용하여 겨우 점수를 얻었습니다.

위의 소품은 자원봉사 나오신 한 어르신 이야기기를 듣고 어린시절 그 원시 시대(?)의 시골 마을이 떠올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방송화면에서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광고를 보면, 바로 내 아인슈타인의 시골모습이었으니까요. 집안에 약이라곤 없었고, 아이한테 더 어린 아기를 맡기고 어른들은 다 일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오실 동안, 큰애는 동생을 보살피야 했습니다. ‘아까징끼’라는 빨간 약은 두통에는 이마에, 치통에는 두 뺨에, 벌레 물린데, 끓아터진 현데, 허리 아픈데 등 만병통치 약이었으니까요. 동생은 무지몽매한 형이 배에 발라주는 붉은색을 보고 복통이 그치는 걸 느끼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어른들 특히 고학력자들은 기겁할 처방이지만, 무지한 아이, 순진무구한 어린이는 철석같이 믿었고, 복통은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편하게 낮잠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까징끼 약효를 믿어 실제로 약발을 받듯이, 주님 말씀도 아이처럼 믿어야 믿음발을 받는데 말입니다. 주님 말씀은 아무리 읽고 들어도 의심과 믿음 사이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동전의 양면인지 알 수 없을 때 주님 말씀대로 아이가 되지도, 닭지도 못해 괴롭습니다. ◆ 유안진 글라라 / 시인, 서울대명예교수

<전례 상식>

“거룩하시도다!”를 세 번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사 중 감사송이 끝나면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하나가 되어 ‘거룩하시도다!’를 세 번 반복하여 노래하거나 외칩니다. 라틴어원문의 첫 글자를 따서 ‘상투스(sanctus)’라고 불리게 된 이 노래는 공동체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환호성입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거룩함의 강도를 점점 높여 가는 표현법입니다. 즉 하느님의 더 없는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